

레슬링,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부활…광주체중·고 훈련 현장

“다시 꿈꾸는 올림픽…훈련이 즐거워요”

“꿈이 없어졌다 싶었는데 다시 올림픽을 무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광주체육과 활지훈(3년·자유형 85kg급)은 레슬링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중학 1년때부터 레슬링을 해온 활지훈은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 무대에서 뛰고자 하는 꿈을 키워왔다.

9일 오후 찾은 광주체육중·고 오륜관 3층 레슬링부 훈련장.

50여명의 레슬링 선수들이 매트 위에서 2명씩 짙을 짜여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전 수업중 교내방송으로 ‘레슬링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실마다 ‘와~’하는 환호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타 종목 학우들이 레슬링부 선수들에게 물려와 내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줬다.

IOC(국제 올림픽위원회)는 9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정식종목으로 레슬링을 선정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진행된 투표에서 레슬링은 총 유효표 95표 가운데 과반인 49표를 얻었다. 야구·소프트볼이 24표를 얻어 뒤를 이었고 또 하나의 경쟁 종목이던 스쿼시는 22표를 받았다.

IOC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을 올림픽 25개 혁신종목에서 레슬링을 탈락시켰다. 고대 올림픽은 물론 근대 올림픽에서도 출전한 정식 종목의 지위를 잊지 않은 상징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축복은 컸다.

이후 국제 레슬링연맹(FILA)은 수장을 교체하고, 조직개편과 규정 개정 등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 7개월 만에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택받아 최대 위기를 벗어났다.

우선 2분 3회전 세트제로 진행되는 경기를 3분 2회전의 총점제로 바꿔 득점만 보고도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패시브 규칙에도 변화를 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가 9일(한국시간) 총회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28번째 정식종목으로 레슬링을 선정한 가운데 광주체육중·고 레슬링부 선수들이 매트 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조직개편·규정 개정 등…7개월만에 살아나

골프·럭비 추가 입성…야구·스쿼시는 탈락

개정 등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 7개월 만에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택받아 최대 위기를 벗어났다.

우선 2분 3회전 세트제로 진행되는 경기를 3분 2회전의 총점제로 바꿔 득점만 보고도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패시브 규칙에도 변화를 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이종규 광주체육 레슬링부 감독은 “새로운 경기규정은 유도 한판처럼 3점짜리 기술 2번이면 시합이 끝나버린다”며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선제공격이 승부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장태영 전남레슬링협회 전무이사(호남원)에 레슬링부 감독은 “최초 발표후 7개월 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발표로 레슬링 선수들의 사기가 올랐다”며 “우리나라 레슬링이 힘들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슬링은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안긴 효자 종목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올림픽 레슬링 메달리스트는 김원기(한국·미국 LA올림픽 금메달), 김영남(한국·서울올림픽 금메달), 김성문(광주·‘은메달’), 노경선(해남·‘동메달’), 안한봉(해남·바른슬로니올림픽 금메달), 김종신(한국·‘은메달’), 민병각(해남·‘동메달’), 김민기(‘은메달’), 김민기(‘동메달’) 등 7명이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암벽 기대주’ 조선대 김홍일 전국대회 2위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기대주 김홍일(20·조선대 1년)이 서울시장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김홍일은 지난 7~8일 서울 당고개 인공암벽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일반부 난이도 종목에서 민현빈(서울 아디다스클라이밍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조승운(19·광주 전자공

고 3년)은 6위, 김한율(광주 빛고을고)은 7위에 머물렀다.

앞서 김홍일은 지난 8월말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남자일반부 난이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한 김홍일은 2009년 전국 대회 학생부 우승 이후 지난 2011년



17세의 나이로 제23회 광주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호남대 공태현 한국 아마 골프 2위

호남대학교 골프산업학과(학과장 박인해) 공태현(1년)이 국내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대회인 ‘허정구배 제60회 한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상비군인 ‘골프 선수권대회’는 150점의 국가대표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여서 국내 170명의 아마추어 기대주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대회로, 공태현은 이번 준우승으로 2014년 국가대표 선발의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써낸 이창우(한국체대)가 정상에 올랐다. 이창우의 269타는 대회 최저타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06년 김경태가 세운 270타였다.

‘허정구배 한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는 3~6일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국가 대표 선배들과 숨막히는 접전 끝에 4라운드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54년 창설돼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허정구배는 아마와 프로를 통틀어 역사가 가장 긴 대회이다. 대한 골프협회와 한국 프로골프협회 등을 이끌었던 고 허정구 회장을 기려 2003년부터 허정구배로 치러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생활체육 활성화 길을 묻다

시 생활체육회 간담회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최근 신양 파크호텔에서 광주시 생활체육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오형국 행정부시장, 광주시 생활체육회 임원, 5개 구 생활체육회·57개 광주 종목별연합회·생활체육지도자 등 320명이 참가해 생활체육 진흥법 제정 및 생활체육 발전 방안,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와 함께 광주대학교 신창호 교수의 생활체육 법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특강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17개 시·도 생활체육회를 방문하고 있는 서상기 회장은 “생활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

려 노력한다”며 참석자들과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해 생활체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행 안내

해외 및 섬은 계제가 불가합니다.(유지만 가능)

9월 11일(수)

▲광주체육신인회 9월 11일(수)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5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14일(토)

▲광주철도신인회 9월 14일(토) 일간자 자유의리제3평원 도라진방대 도라신역(DMZ) 자운서원 KTX 템파일, 광주 0730 출발 0915 1000 0625 5778

9월 15일(일)

▲광주체육신인회 9월 15일(일) 전북 무주 남택유산, 0730 연주체육관 주차장, 0750 무등경기장 후문, 0800 문예회관 후문, 0810 비엔날레 주차장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16일(월)

▲광주체육신인회 9월 16일(월)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17일(화)

▲광주체육신인회 9월 17일(화)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18일(수)

▲광주체육신인회 9월 18일(수)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19일(목)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19일(목)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0일(금)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0일(금)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1일(토)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1일(토)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2일(일)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2일(일)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3일(월)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3일(월)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4일(화)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4일(화)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5일(수)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5일(수)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6일(목)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6일(목)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7일(금)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7일(금)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450, 011 259 0284

9월 28일(토)

▲빛고을무지개기념사업회 9월 28일(토) 전북 진안 대동산(금강 산인삼축제), 0730 백운동로터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0900 문예회관후문 0820 *다음카페 광주체육신인회 011 3